



'2023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에 전시 중인 현대차 '디올 뉴 싼타페'.



<현대차 제공> 미국 판매법인 판매사업 부사장 에릭 왓슨(Eric Watson)이 기아의 콘셉트카 EV3과 EV4를 발표하고 있다.

<기아 제공>

# 현대·기아차 북미시장 선점 나선다

### 'LA 오토쇼' 참가 신형·고성능·전기차 콘셉트 모델 등 공개 아이오닉5N '첫 선'...싼타페·쏘렌토·제네시스 등 60여 종

현대차와 기아가 '싼타페'와 '쏘렌토' 등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차량의 신형 모델과 고성능, 전기차 콘셉트 모델을 북미시장에 선보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6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이며 북미시장 선점을 나섰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로스앤젤레스(LA) 오토쇼'에 참가, 다양한 차종을 공개했다.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오토쇼에 현대차·기아는 총 60302㎡(현대차 4070㎡·기아 2232㎡) 규모의 전시관을 만들어 기술력과 혁신적인 트렌드를 제시한다.

◇현대차 '싼타페'·기아 '쏘렌토'...SUV 시장 집중 공략=현대차와 기아는 오토쇼 첫날인 16일 행사장 각 부스에서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조만간 북미에서 출시 예정인 주력 SUV 신형 모델 '디올 뉴 싼타페'와 2024년형 쏘렌토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싼타페와 쏘렌토 두 모델은 한국에서 양사의 SUV 간판 모델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형 차를 선호하고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니는 미국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두 SUV 신형 모델의 더 강해진 성능과 넓어진 내부 공간, 가족이 함께 쓰기에 편리한 각종 기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디올 뉴 싼타페는 2열과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경우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테라스 콘셉트의 넓은 테일게이트(뒷문) 공간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디올 뉴 싼타페와 아이오닉5N은 내년 상반기 중 북미 시장에서 출시된다.

기아는 새롭게 추가한 쏘렌토 엑스-프로(X-Pro) 트림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트림에는 17인치 휠과 험로 주행에 특화된 'BF긱리치'사의 울-

레인(All-Terrain) 타이어가 적용됐다. 또 최대 4천파운드(1.8t)까지 견인 능력을 높여 캠핑용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임스 벨 기아 미국법인 홍보책임자는 "기존 스포티지와 텔루라이드에 적용된 엑스-프로 버전이 출시 이후 가장 잘 팔리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라인업 중 인기 있는 모델인 쏘렌토에도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을 더한 엑스-프로 트림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아는 2024년형 쏘렌토를 내년 1분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N', 기아 EV3·EV4 콘셉트 모델 북미 첫 공개=먼저 현대차는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을 북미 고객에게 처음 선보였다.

아이오닉5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 등이 탑재돼 합산 448kW(609마력)의 최고 출력과 740Nm(75.5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다.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크게 높여 최대 가속 성능을 발휘하는 모드인 'N 그린 부스트'를 사용하면 합산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각각 478kW(650마력), 770Nm(78.5kgf·m)로 늘어나고, 3.4초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다.

기아는 전기차 콘셉트 모델인 '더 기아 콘셉트 EV3'과 '더 기아 콘셉트 EV4'를 소개했다.

EV3 콘셉트는 '이유 있는 즐거움 경험'을 주제로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룬 디자인에 방점을 찍었다.

전면부는 새로운 전기차(EV) 타이거 페이스와 미래 지향적 느낌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됐다. 측면부는 사각형을 비대칭적인 각도로 잘라낸 듯한 휠 아치의 구조가, 후면부는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룬 리어 펜더가 특징이다.

EV4 콘셉트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픈잇 유나이티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를 주제로 기아가 추구하는 차세대 전동화 세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회사는 전했다.

낮은 전면부와 후면부까지 길게 이어진 유선형의 측면부, 낮게 떨어지는 후드 끝단은 새로운 유형의 실루엣을 연출한다는 것이 기아의 설명이다.

아울러 EV4 콘셉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100% 재활용된 면사에 천연염료를 사용해 다양한 실내 색상을 구현했다.

◇현대차 29대·기아 24대·제네시스 9대 전시해 오토쇼 압도=현대차그룹은 총 60여대의 차량을 전시해 올해 LA오토쇼를 압도했다.

현대차 부스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5 디즈니 100 플래티넘 에디션, 아이오닉6, 엘란트라, 팰리세이드 등 총 29대가 전시됐고, 별도로 마련된 'N 브랜드·모터스포츠존'에서는 싼타페 N 라인, 코나 N 라인 등이 공개됐다.

기아는 쏘렌토 HEV·PHEV와 EV6 GT, 니로 HEV·PHEV·EV, 텔루라이드 등 24대를 전시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도 인근 309평 규모의 부스를 만들어 GV80 부분 변경 모델과 GV80 쿠퍼, GV70 전동화 모델, GV60, G90 등 총 9대를 선보였다.

현대차그룹과 견줄 만한 규모로 부스를 차린 것은 포드자동차 정도였고, 도요타와 혼다, 스바루 등 일본 업체들은 현대차나 기아보다 작게 부스를 차렸다.

폴크스바겐을 제외하고 독일 브랜드들은 대부분 불참해 행사 전체 규모는 전년도 축소됐다.

이날 LA 오토쇼에서는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최종 후보가 발표됐다.

현대차 아이오닉6가 승용 부문에서, 기아 EV9은 유틸리티(SUV) 부문에서 최종 후보로 각각 선정됐다. 최종 수상 차량은 내년 1월 4일 발표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기아, 인증 중고차에 한국타이어 장착

기아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브랜드 체험관 '기아 360'에서 한국타이어와 인증 중고차용 타이어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중고차를 매입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차량에 한국타이어 메인 브랜드 제품을 장착한다. 장착 대상에는 전기차도 포함된다.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는 각각 한국타이어의 사계절용 타이어 '키너지 ST AS'와 포장도로용 SUV 타이어 '다이아프로 HL3'가 탑재된다.

기아의 시그니처 전기차 모델 EV6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가, 스포츠 세단 '스팅어'에는 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12 에보 2' 등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기아 권혁호 부사장은 "기아 인증 중고차 사업 방향에 부합하도록 고객에게 최상의 상태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이라며 "상품화



과정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한국타이어를 공급받은 새 제품을 장착해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자동차 이력관리정보 내년 3월까지 개방

###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렌터카·중고차 피해 방지 기대”

행안부 안전과와 디지털 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전국민에게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렌터카·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비롯해 사고기록 은폐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조회 방식의 불편함 등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자동차 기본정보, 저당권 등록 건수, 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세 제납

횡수, 보험 등 가입 여부, 정비 횟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횟수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렌터카·전세버스 이용이나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 '오픈API' 형태로 개방된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글로벌 수소차 시장 역성장

### 올해 1~9월 1만1290대로 전년비 21.3%↓ 현대차, 점유율 1위 유지...도요타 바짝 추격

올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충전 인프라 부족, 제한적인 차종 등의 영향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수소연료전지차 판매량은 1만129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3% 감소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넥쏘와 일렉시티를 4320대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38.3%로 여전히 수소차 시장 선두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넥쏘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판매량 8547대와 비교해 49.5% 줄었다.

반면 도요타의 미라이 판매량은 올해 5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점유율 30.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양사 간 시장 점유율 차이는 7.6%포인트로 좁혀졌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넥쏘 판매량 감소 여파 등

으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3% 감소한 4013대가 팔렸다. 중국에서는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져 3505대가 판매됐고, 미국에서는 도요타 미라이 수요 증가에 힘입어 2791대가 팔렸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며 침투율을 계속 늘려가는 반면 한정된 차종,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수소차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역성장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아반떼 N TCR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 우승 최근 마카오에서 열린 '2023 TCR 월드투어'에서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N TCR (국내명: 아반떼 N TCR)'이 최종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확정 지었다. 사진은 '2023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에서 드라이버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한 노버트 미첼리츠와 BRC 현대 N 스퀘드라 코르세 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